

## 2016학년도 학회장 인사말

12학번 이대섭

안녕하십니까! 저는 2016년도 '흥이날철' 철학과 학회장을 맡게 된 철학과 12학번 이대섭입니다. 대학을 갓 입학한 새내기 같던 게 마치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철학과의 학회장이 되어있으니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. 저는 2012년도에 학과대표를 하였고, 2014년도 철학과 부학회장을 하였습니다. 이렇게 한 해 한 해 지나다 보니 어느새 철학과에 깊은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. 그리하여 올해에는 이렇게 깊은 애정을 갖게 된 철학과를 더욱 즐겁고 활기차게 만들고자 학회장을 하게 되었습니다. 2016년에는 학회장인 만큼 철학과에 온 힘을 쏟아내고 싶습니다. 그리고 신입생 그리고 재학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. 처음 대학생활을 하면서 서툴고 어려운 점도 많을 것입니다.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점 등 여러 가지를 언제든지 저와 부학회장, 그리고 저희 철학과 집행부들에게 물어봐주세요. 저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며 대학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웃고 울고 할 수 있는 학회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. 2016년도 올해 여러분에게 즐거운 올림이 될 수 있는 학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